

제2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국악 실내악단 ‘청유(淸遊)’ 초청 한·일 교류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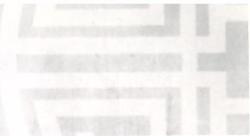
2012. 9. 20(목) 오후 7시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용인행정타운 内)

주최 / 주관 :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 : (사) 한국음악협회-용인지부

Program Note



타악 합주를 위한 “비”

5인의 연주자가 장구의 독특하고 다양한 장단을 구사하여 하나의 소리,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 낸다. 다스름, 모리, 굿거리, 육채의 순서로 연주되는데 특히 놀이적인 면보다 음악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가락을 구성하여 자연의 물결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작곡가 : 길석근

- 추계예술대학 국악과(최초의 타악 전공)와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을 거쳐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6단의 시라베 (ROKUDAN no Shirabe)”

1685년은 음악의 아버지인 J. S. Bach(1685-1750)와 음악의 어머니인 G. F. Haendel(1685-1759)이 출생하고 일본 근세 고도 음악의 기초를 만들어 낸 야쓰하시 켄교(八橋 檢校)가 사망한, 동·서의 음악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다. 야쓰하시 켄교는 후쿠시마현(福島縣) 이와카시에서 태어난 근세 중기의 음악가로 고도 음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ROKUDAN no Shirabe(tune on the 6 steps)“를 작곡했다고 전해진다. “6단의 시라베(調)”는 노래를 수반하지 않는 기악곡으로서 단물(DAN-MONO)이라고 불리는 고도 연주음악의 하나이다. 단물은 6단으로 구성되며 각 단은 54마디인 초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104박(拍 beats)의 52박자(measures)로 이루어진다. 최근 미나가와 다쓰오(皆川 達夫)의 연구와, 노사카 소으즈(野坂操壽)의 연구에 의해 “6단의 시라베“가 그레고리안 성가의 「크레도(credo 신앙고백)」와 정확하게 중복(overlap)된다고 입증되었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전해진 규슈(九州)의 고도 연주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크레도」를 노래가 아닌 쟁, 샤미센으로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 『관현초심집』등에 쟁이나 샤미센, 한 구절의 악보의 어떤 《쓰가가키》가 아닐까라고 구보타 토코(久保田 敏子)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것을 야쓰하시가 「6단」으로 예술화해 제자들이 세련화해 갔다고 추정된다. 「크레도」를 듣고 개인적으로 경험해던 야쓰하시가 일본에서 기독교 금지령이 내린 이후 「크레도」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도 독주로 그것을 전파했다고 여겨진다. 「6단으로 시작하고, 6단으로 끝난다.」라고 말하여지는 이 독주곡은, 이중주에서 합주곡까지 만들어 내는 고전적 명곡이다.

고도 독주를 위한 “변용(Metamorphosis)*

나는 일본 어린이 노래의 변주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노래는 변주하기에 너무 짧아서 이 어린이 노래(WARABE-UTA)의 선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변주 도중에 어린이 노래 「설날」 있었다 (OSHOGATSU GOZATTA)의 주제와 변주가 제시되는 이중변주곡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수도절 노래 (MIYAKO-BUSHI 5음 음계: EFAHD와 ABDEG)에 C를 더한 EFAHD ABCDEG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선법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곡가 : 다지마 와타루(田島 亘)

- 1963년 도쿄(東京) 예술대학 작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나오미(尚美) 음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 1966년부터 오사카(大阪) 음악대학에서 근무하여 강사, 조교수를 거쳐 교수가 되었다. 그동안 관현악곡에서 실내악곡에 이르는 많은 작품이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발표되었다. 2005년 오사카 음악대학을 퇴임한 후에도 매년 활동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Program Note

가야금 삼중(합)주를 위한 “三寶 (Triratna for Gayagum Ensemble 2009)”

산스크리트어로 세 개의 보배란 뜻의 제목을 붙인 이 작품은 세 파트로 나뉜 가야금 합주를 위한 곡이다. 함 동정월이 연주한 최옥삼 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들의 꽉 짜여진 장단들 안에서 계면길, 평조길, 우조길 등의 음계의 선율로 진행되며 본청이 바뀌어 조바꿈되거나 전조된다. 이 최옥삼 류 가야금 산조의 선적흐름의 정수를 바탕으로, 산조 즉 허튼가락이라 칭해졌던 즉흥적 성향의 표현들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주제선율의 삼중 대위의 조합을 음악적 진행의 틀로 삼았다. 또한 가야금 산조의 독립된 단락으로 이루어진 선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락들의 관련을 일정한 종지형 선율로 맺어준 구성의 틀을 기본으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긴장, 이완, 문답, 간조, 음·양의 대비를 이루어 나가게 만들었다. 첫 부분의 자유로운 혜테로포니(Heterophony) 삼중대위 구조와, 독주로 여는 엄격구성의 폴리포니(Polyphony) 삼중캐논, 그리고 이 작품의 목표점(Goal)이라 할 수 있는 코랄 풍의 호모포니(Homophony) 주제악절로 이루어진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은 첫 부분의 악구적 요소를 역행(Retrograde)시켜 재구성한 또 다른 조합으로서의 삼중대위의 텍스쳐로 이루어진다.



작곡가 : 정현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에서 백병동을 사사하고, King's College London에서 Harrison Birtwistle 의 지도 아래 Ph. D.를 받았다. 동아콩쿨, 국제현대음악협회 스웨덴 세계음악제에 입선하였으며 ISCM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추계예대 겸임교수, 서울대, 국민대, 단국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운지회 사무총장과 양상복 루미나시아 음악감독, 아시아작곡가연맹, ISCN 한국위원회, 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립 전남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달과 나그네”

이 곡에서는 박목월님의 시 <나그네>에 등장하는 나그네의 행로를 연장시켜, 달빛 아래 밤길을 걷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그네를 비추는 달빛과, 나그네가 바라보는 달빛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양자 간의 합일과 해체를 반영함과 더불어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와 굿거리의 혼용장단과 육체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시의 정서와 향토적 풍류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작곡가 : 최영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를 졸업하였으며, 백병동 교수와 Prof..Theo Brandmueller(테오 브란트뮐러 교수)를 사사하였다. 국민대 서울대 성신여대 추계예대 충남대 등의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운지회, 한국 여성작곡가회, ISCM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예술의 전당 영재아카데미에 출강하고 있다.

고또 독주를 위한 “한송이의 꽃”*

이 작품은 2012년 1월에 Clumusica에 의해 교토에서 있었던 현대음악 페스티벌 「아시아의 쟁[箏]의 현재」에서 작곡가 박은아의 「노아의 방주(Noah's ark)」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올해 5월13일 어머니의 날에 시를 쓰고, 이 시를 기초로 작곡했습니다. 제 자신은 어머니가 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Program Note

흙

- 나카무라 노리코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였다
소녀일 때에도 어머니였다
아가씨일 때에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죽은 것 같은 어머니다

가사의 고치를 살고는 있지만
이것이 나의 어머니다
대지의 다른 이름을 어머니라고 한다
어머니인 흙에 사는 모든 것들아
어머니에게 한 송이 꽃을 바치자



작곡가 : 나카무라 노리코(中村 典子)

· 교토시립(京都市立) 예술대학 음악학부 작곡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재학 중 독일 브레멘 예술대학에 파견되었으며 교토(京都) 음악협회상을 수상하였다. 고(故) 히로세(廣瀬)량 평, 키타즈메 미치오(北爪)道夫, 마에다 마모루(前田 守)1, 후지시마 아키라 히사시(藤島 昌 齋), 다지마 와타리(田島 宜), 고(故) H. J. 카우프만, G. 아미에게 사사하였다.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작품이 연주되었으며 지금까지 일곱 번의 작곡 리사이틀을 개최하였다. 1995년 UN현장(United Nations charter) 50주년 기념 세계국제무용제에 일본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97년 제1회 오구라 리조(小倉 理三)님 음악장학금을 수상하였다. Artist in residence in die "Hoogege" (Syke), 2001년 교토시(京都市) 예술신인상, 2009년 ACL(한국)입선, 2010년 시가현(滋賀縣) 문화장려상, 2011년 ACL(대만)과 2012년 ACL(이스라엘)에 입선하였고 8개의 CD와 1개의 DVD, 13개의 작품이 악보로 출판되었다. 2008년부터 교토(京都) 예술 센터 운영 위원, 일본 현대음악협회, 일본 작곡가협의회 회원, 국제여성작곡가회(독일), 동양음악학회, 국제전통음악학회 소속, clumusica 공동주재, 코치 의회·동풍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교토 시립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악 실내악단을 위한 “유락(遊樂)”**

이 작품은 국악 실내악단 “청유(淸遊)”를 위하여 작곡되었다. 터벌림장단, 호호굿, 육채가락과 같은 비대칭적인 한국 전통 장단과 더불어 5·8·8·5·5의 비대칭적인 장단으로 구성되는 경기민요 “노랫가락”的 선율이 작품을 이끌어나간다. 국악 양상불을 위한 “유락(遊樂)”이 “청유(淸遊)”에 의해 ‘아담하고 깨끗하며 속되지 아니하게 놀려지고 즐겨지기’를 기대해본다.



작곡가 : 이복남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및 동대학원(M.A.)에서 백병동을 사사하고 미국 런거스 대학(Ph.D)에서 Charles Wuorinen, Gerald Chenoweth를 사사하였다. 3회에 걸친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루마니아, 영국, 뉴질랜드 등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연주되었다. 현재 (사)한국작곡가 협회 이사,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운지회,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원도 아리랑”

국악 실내악단 ‘청유’만의 느낌으로 피리의 멋스러운 음색과 가야금 반주에 다양한 리듬변화를 주어 관객과 연주자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편곡해 보았다.

Profile



고또 : 오에 미야코(麻植 美彌子)

- 일본 구사쓰시(草津市) 출신으로 조모오노카 가쓰코(大仲 勝子)에게 3세부터 쟁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요시자키 가쓰히코(吉崎 克彦)씨에게 사사하였다. NHK일본음악 오디션 합격하였고 하세(長谷) 檢査 기념 전국 일본음악 콩쿠르 쟁 부문에서 제1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헤이와당(平和堂) 재단예술장려상(음악부문), 교토(京都) 예술축제 음악부문 교토(京都) 시장상 수상 이외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 각지에서 리사이틀 개최하였으며 나카지마 사다오(中島 貞夫) 감독 DVD 「다도」, 무대 「횡적」 등에 음악으로 참가하여 호평을 얻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싱가폴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아티스트들과도 장르를 뛰어 넘는 다채로운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현대곡의 연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현재 무지카A 국제음악협회회원. NHK교향악단 플루트 연주자 스가와라 준(菅原 潤)씨와 CD 「Collaboration」을 출판하였다.



대금 : 김 현

- 안산 시립 국악단 단원
- 중앙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중
- 중요무형문화재 45호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수자



피아노: 김영진

- 중앙대학교 실기수석 졸업
-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자브뤼켄 음대 최고점수로 졸업
- 현재 중앙대학교 출강

해금 : 임주영

-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서울국악관현악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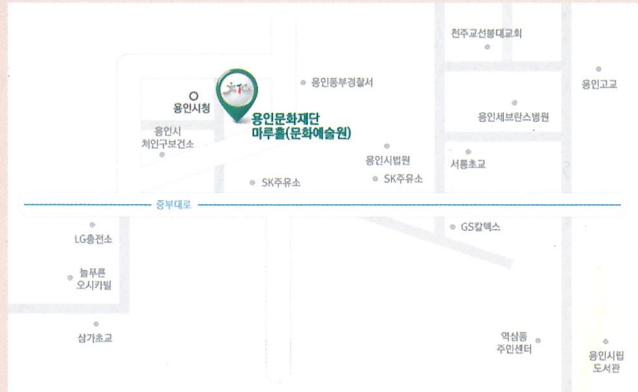
국악 실내악단 : “청유”

- ‘청유(淸遊)’란 ‘아담하고 깨끗하며 속되지 아니하게 놀다’라는 뜻으로 전통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창작 음악에 대한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2010년 5월 창단되었다. 전통음악을 젊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 하여 국악 대중화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젊은 국악 실내악 팀이다.

대 금 : 김혜진
가야금 : 김태은, 허나래, 박다운
피 리 : 최수지
해 금 : 강 솔
타 악 : 한으뜸, 김솔잎
소 리 : 심다예

무대감독 : 류종욱

오시는 길



용인문화재단 마루홀(용인행정타운 내) T.031)339-74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처인구 삼가동 566번지)

-**자가용 이용시**

수원IC 진입 -> 우회전후-> 용인방향으로 10km 직진->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지하철 이용시**

분당선 죽전역 또는 보정역에서 버스 67,67-1,68,69,690번 승차 후 삼가동 행정타운 하차, 도보5분

-**버스 이용시**

수원, 용인방면: 10,10-5,66,66-1,66-3,66-4

모란, 아탑역: 택시로 10분

양재, 강남역: 5001,5001-1(좌석)

강변역, 잠실: 5600(좌석)